

연구논문

# 나말여초 윤다의 활동과 「광자대사비」 건립의 의미

---

전혜빈

서강대학교 박사과정, 한국사 전공

hbeen789@gmail.com

---

- I. 머리말
  - II. 후삼국 시기 윤다의 활동과 동리산문
  - III. 윤다와 고려 왕실의 관계
  - IV. 광자대사비의 건립과 황보씨 세력
  - V. 맺음말
-

## I. 머리말

---

광자대사(廣慈大師) 윤다(允多, 864~945)는 동리산문(桐裏山門)<sup>1</sup>의 개산조인 혜철(慧徹, 785~861)의 제자 상방화상을 친견하여 제자가 되었고, 이후 윤다라는 법명을 얻어 동리산과의 선맥을 이었다. 윤다는 신라 말 효공왕(재위 897~912)으로부터 조서(詔書)를 받았고, 고려 개창 이후 태조 왕건(재위 918~943)의 초빙으로 개경 근처의 왕흥사(興王寺)에 머물기도 했다. 이후 왕의 허락을 얻어 다시 동리산으로 돌아갔으며, 이때 태조로부터 전결(田結)과 노비, 향적(香積)을 받았다. 이후 윤다는 고려 혜종(재위 943~945) 2년(945) 2월 2일 제자들을 불러 부촉한 후 속년 82세, 승랍 66세로 입적했다.

윤다가 입적한 후 고려 조정은 본산에 윤다의 탑을 세우게 했다. 그러다가 윤다의 제자가 탑에 대한 비명(碑銘)이 없어 스승의 도행이 잊힐까 두렵다 하여 고려 조정에 입비를 요청했다. 윤다가 입적한 지 5년 후인 고려 광종(재위 949~975) 1년(950) 조정은 이를 허락하여 지금의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대안사(大安寺)[이후 태안사(泰安寺)]에 비를 세웠다. 현재 태안사에는 광자대사탑과 더불어 광자대사비가 함께 보존되어 있다. 이를 보면 고려 왕실이 전답과 노비를 하사하고 탑과 비를 세워 줄 만큼 고려 초 윤다의 위상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당시 고려 태조가 윤다를 개경 근처의 흥왕사로 주석하게 할 만큼 윤다와 고려 왕실과의 관계가 밀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윤다의 활동을 단독

---

1 동리산문은 선종 구산문 가운데 하나로 신라 하대 혜철선사가 개창하여 크게 융성했다. 그곳은 가지산문, 실상산문과 더불어 전라도 서남 지역에 위치한 산문으로 전부 당나라의 서당 지장(735~814)의 맥을 이었다. 조범환, 『나말여초 선종산문 개창 연구』(서울: 경인문화사, 2008), 55쪽.

으로 다룬 논문은 찾기 힘들다. 단지 비문의 해석을 다루거나<sup>2</sup> 나말여초 선종사 연구에서 동리산문과 관련 내용에서 언급되고 있다.<sup>3</sup> 또는 대안사의 전장(田莊)과 그 경영에 주목한 연구<sup>4</sup>가 있으며, 혹은 일제 강점기 편찬된 『태안사지』에 기록된 「광자대사비명」을 검토하면서 윤다의 활동을 부분적으로 다룬 논문이 있다.<sup>5</sup> 이처럼 기존 연구에서는 동리산문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윤다의 활동을 다루거나 태조의 선승 포섭정책 안에서의 윤다를 주목했다. 혹은 건훤의 선종사원 정책 속에서 윤다와 왕건과 관계를 살펴보기도 했다. 이러한 연구는 나말여초 윤다의 활동을 어느 정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나아가 좀 더 살펴볼 부분이 있다고 본다.

첫째, 윤다와 왕건의 결합 배경과 관련한 문제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대체로 왕건의 나주 점령 이후 왕건과 윤다가 결합했다고 보았다.<sup>6</sup> 후백제 건훤(867~936)과 윤다가 깊은 연관이 있었다면 동리산문이 고려 초 세력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혹은 건훤이 전주로 천도한 이후 동리산문에 대한 지원이 실상산문보다 상대적으로 약해져서 윤다와 왕건이 연결

- 
- 2 이지관,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 고려편 1』(서울: 가산문고, 1994); 박혜범, 「광자대사 복원비문」, 『동리산사문비보』(과주: 박이정, 2009).
  - 3 나말여초 선종사 연구 저서에서 윤다의 활동을 언급한 저서로는 조범환, 『나말여초 남종선 연구』(서울: 일조각, 2013); 김두진, 『신라하대 선종사상사 연구』(서울: 일조각, 2007) 등이 있고 동리산문과 관련한 연구 논문으로는 추만호, 「나말여초의 동리산문」, 영암군(편), 『선각국사도전의 신연구』(광주: 영암군, 1988); 이덕진, 「신라말 동리산문에 대한 연구」, 『한국선학』 2(2002), 209~256쪽; 이경복, 「신라말, 고려초 대안사의 전장과 그 경영」, 『이화역사연구』 30(2003), 119~136쪽; 조범환, 「신라하대 해철선사와 동리산문의 개창」, 『민족문화논총』 34(2006), 447~472쪽 등이 있다.
  - 4 이경복, 위의 글.
  - 5 최성렬, 「대안사 담선방과 태안사」, 『철학논총』 28(2002), 1~19쪽; 최성렬, 『『태안사지』 소재 광자대사비명의 문제점』, 『한국불교학』 29(2001), 195~223쪽.
  - 6 김두진은 건훤과 깊이 연결되었다면, 동리산문이 고려 초에 계속 세력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윤다와 왕건의 결연 시기를 나주 공략 직후로 보고 있다. 김두진, 앞의 책(2007), 315쪽.

되었다고 보기도 한다.<sup>7</sup>

그런데 고려 초 후백제 세력이었던 인물이 고려에 대거 편입된 사실을 생각하면 전자의 설득력이 떨어진다. 후자의 경우에도 다소 의문점이 있다. 실상산문에 대한 지원 강화가 곧 동리산문의 소외를 의미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대안사는 실상산문이나 가지산문과 비교했을 때 절대 그 영향력이 적지 않았다. 개산조인 혜철은 문성왕(재위 839~857) 시기 대대적인 지원을 받았으며 경문왕(재위 861~875) 시기에도 많은 토지를 소유했다.<sup>8</sup> 견훤이 그러한 대안사를 등한시하고 실상산문만 더욱 지원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대안사의 위치는 후백제의 관할권이었고 그 배후 세력을 지원했던 사찰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견훤이 다른 산문을 지원했던 것은 대안사에 대한 무관심보다도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왕건이 유학승이 아닌 승려를 포섭하는 모습은 통일 후에 두드러졌다. 이에 윤다가 유학승이 아니라는 점에서 윤다와 왕건과의 결합 배경은 왕건의 삼국 통일 이후 후백제 세력 포섭 배경에서 살펴보아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둘째, 기존 연구에서는 광자대사비가 윤다의 입적 5년 후인 고려 광종 1년(950)에 세워졌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특히 비문에 왕자 옥(旭)이 윤다에게 제자가 되기를 청했다고 나타나 있다는 점과 윤다 입적 후에는 탑만 조성되었다가 이후에 비가 세워졌다는 기록에 어떠한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실제로 옥이 제자가 되기를 청했다고 나타나 있지만, 옥의 나이가 어렸다는 점을 생각할 때 그 스스로 제자가 되기를 청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

7 조범환, 앞의 책(2013), 213쪽.

8 「혜철선사비문」에 따르면, 문성왕이 자주 글을 내려 위문했으며, 대안사 주변에 禁殺幢을 설정하고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 주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경문왕 또한 혜철선사의 입적 후 왕명으로 비문을 지어 탑비를 세우게 했다. 이러한 사실을 보았을 때 결코 동리산문의 입지가 적었다고 보기 어렵다.

히려 육으로 대표되는 황보씨 세력이 윤다와의 관계를 주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 비문에는 윤다의 선종을 흠모했기 때문으로 나타나지만, 단순히 그것만으로 제자가 되기를 청했다고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광종 초기에 황보씨 세력의 작용이 적지 않았다는 점<sup>9</sup>에서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비에는 대안사의 단월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지 않다. 왕건에게 향적을 받았을 만큼 번창했던 사찰에서 단월이 불분명하다는 점은 미심쩍다.<sup>10</sup> 이는 대안사가 당시 고려 왕실의 정치적 상황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부분이다. 따라서 윤다의 활동이 담긴 「광자대사비문」은 태조 이후 고려 왕실과 대안사의 관계를 밝혀 줄 중요한 실마리로 연구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여기에서는 「광자대사비문」의 내용<sup>11</sup>을 중심으로 나말여초 윤다의 활동 및 고려 초 광자대사비의 건립과 그 의미를 검토해 보려고 한다. 우선 윤다의 활동과 당시 동리산문의 상황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고려 왕실과 윤다가 관계를 맺게 되는 배경을 살펴볼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고려 왕실이 광자대사비를 건립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동리산문과 고려 왕실의 관계가 지니고 있는 정치사적 의미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러한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소 밝히지 못했던 고려 왕실과 윤다의 정치적 관계를 다룬다는 데 의미가 있다.

---

9 김창현, 『광종의 시대』(서울: 푸른역사, 2003), 222쪽.

10 김두진은 대안사의 단월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은 이유가 신라나 고려의 국가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름이 남겨질 수 없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하면서 대안사의 단월이 견훤 세력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두진, 앞의 책(2007), 321쪽.

11 논문에서는 이지관, 앞의 책(1994)에 수록된 비문 해석을 기본으로 인용하되 특별히 다른 해석이 요구될 경우 따로 인용 출처를 표기하였다.

## II. 후삼국 시기 윤다의 활동과 동리산문

윤다는 자(字)는 법신(法信)으로 성씨는 전하지 않으며, 경문왕 5년(865)에 태어났고 경사(京師) 출신이다.<sup>12</sup> 기존 연구에서는 윤다를 경주 출신으로 파악하고 있다.<sup>13</sup> 광자대사비가 고려 때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윤다가 개경 출신인 근거가 미약하고 선승 관련 비에서 대체로 경사가 경주 출생으로 나타나는 것을 고려할 때 윤다도 경주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의 조부모는 귀족으로서 고관을 역임했고 난리를 겪으며 집안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한다. 그의 어머니는 박씨로 성품이 온화하여 사람됨이 정결했다고 전해진다.<sup>14</sup>

그러나 이러한 서술에도 불구하고 윤다의 가계에 대한 구체적인 계보나 사실관계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를 보아 비문의 내용처럼 윤다가 유력한 가문에서 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비문을 통해 한미한 가계를 미화하려 한 의도였을지도 모른다. 또는 고려 왕실의 정치적 사정으로 인해 그의 가문에 대한 자세한 언급을 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윤다에 관한 기록이 「광자대사비문」밖에 없으므로 그의 가문에 대한 실상을 알기 어렵다. 윤다는 7~8세에 불교에 수도할 뜻을 품었다. 그러나 부모의 반대로 고민하다가 부모님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여 동리산으로 가게 되었다.

A. 스스로 두루 돌고 요동을 거쳐 길을 재촉하여 동리산으로 가서 상방화상(上方和尚)을 친견하였다. 서로 면목을 대하고 형용을 돌아보니 수일 후 시봉(侍

12 이지관, 앞의 책(1994), 284쪽, “大師法諱允多 字法信 京師人也”.

13 김두진은 윤다의 가문이 경주에 거주했던 중앙귀족으로 파악했다[김두진, 앞의 책(2007), 141쪽]. 이덕진은 윤다가 경주 출신이기는 하나 비문에서 한미한 가문을 미화한 것으로 파악했다[이덕진, 앞의 글(1988), 218쪽].

14 이지관, 앞의 책(1994), 284쪽, “其祖考等 皆族盛簪纓 以傳孝義 家記而亂 來拋墜聲譽而耳口聞言 其妣朴氏 受性溫和”.

奉)하게 되었다. … 가야갑신수(伽耶岬新葢)에서 구족계를 받은 후로는 다만 원승이같이 단단히 엮어 매었고, 말 같은 의식 또한 놓아 두지 아니하였다. 계를 지키려는 굳은 마음을 주야로 한결같고, 수도하려는 강철 같은 마음은 순간에도 쉬지 아니하였다. 대문과 창문을 열고 들어가지 아니하여도 대도(大道)를 보았으며, 곤륜산에 오르거나 여해(驪海)에 들어가지 않아도 신주(神珠)를 얻었다. 또한, 도덕 또한 고매하여 아름다운 명성을 사방에 떨쳤고, 법을 배우고자 하는 법려(法侶)들이 입표(入表)로부터 모여들었다. 혜철(慧徹)은 여(如)에게 전하였 으며, 여는 우리 광자스님에게 전하였으니, 즉 서당의 승손인 셈이다. 대사는 서당의 법통을 전해 받았으니, 수고롭게 서학을 하지 않고도 세상의 인연을 동성(東城)에 베풀었다.<sup>15</sup>

사료 A는 윤다는 출가 후 일찍이 동리산문의 대안사에 찾아가 상방화상의 제자가 되었고, 그 후 윤다가 가야갑신수에게 구족계를 받았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동리산문은 혜철이 842년 무렵 쌍봉사를 떠나 대안사에 주석한 이후 번성했다. 혜철은 동리산문을 개창한 846년부터 입적한 861년까지 15년간 대안사를 운영하며 동리산문을 확장하는 데 주력했다. 이 시기에 동리산문은 크게 확장해 염전을 매득하기도 하고<sup>16</sup> 대안사 이외에 옥룡사(玉龍寺)까지 산문을 확장<sup>17</sup>했다. 그리고 혜철 입적 후 868년 경문왕은 시호와 탑비를 내리

15 위의 책, 285쪽, 「광자대사비문」, “自此周迴 跋涉於遼東 迤邐 遠詣於桐裏 參觀和尚 類相面目 顧盼形容 數日後 侍奉上方和尚 … 於伽耶岬新葢 受具後 但繫心猿 無縱意馬 戒瓶方挈油不敬 不偏志於書背 網砥心於瞬息 不戶不牖 見大道 不崑不海 得神珠 芳聲既震於四 法侶 遠自於八表[以下缺] 法祖 西堂傳於徹 徹傳於先師如 如傳於吾師 卽西堂曾孫也 大師傳法化於西堂 卻不勞於西學 割世緣於東城.”

16 조범환, 앞의 글(2005), 17~18쪽.

17 김두진, 「나말여초 동리산문 성립과 그 사상: 풍수지리사상에 대한 재검토」, 『동방학지』 57(1988), 10쪽.

고 872년 대안사에 비를 세웠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윤다가 대안사의 위상이 높다는 것을 알고 상방화상을 친견했을 가능성이 있다.

비문에서는 윤다가 이미 서당지장의 법인을 받은 동리산문의 해철 그리고 여의 법통을 전해 받았다고 나타난다. 이때 여는 도선으로 보기도 한다. 그런데 비문에는 윤다가 여에게 선법을 받았다고 분명히 나타나 있으며, 윤다와 상방화상의 일화만을 알 수 있으므로 상방화상이 여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여는 도선이기보다는 별도의 인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sup>18</sup> 그렇다면 윤다가 상방화상의 제자가 된 이후의 활동이 궁금하다. 다음 사료를 주목해 보자.

B-1. 도야(桃野)에 발자취를 두루미치고 본사(本寺)를 잊지 아니하다가 고산(故山)으로 돌아왔다. 이틀이 조금 지난 날밤에 갑자기 산적이 절에 침입하여 의물(衣物)을 빼앗고자 상방화상의 방으로 들어왔다. 대사는 우연히 뜻밖의 일을 당하였으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좌(禪座)에서 움직이지 아니하였고, 위봉을 당하여서는 오히려 그들의 악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지혜의 칼로써 마구니들을 항복시켰다. 적도들이 [결락] 충돌함이 없었다. 대사는 도적들에겐 죄란 본래 없는 것이라 하여 허물을 탓하지 아니하니 스님의 말이 끝나자 도적들은 공손히 예배하고 물러갔다.<sup>19</sup>

18 이지관은 여를 도선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뚜렷한 근거가 없다[이지관, 앞의 책(1994), 294쪽]. 김두진은 해철에게는 도선과 여라는 각각의 제자가 있었다고 파악했다[김두진, 앞의 책(2007), 61쪽]. 해철의 문하에 많은 제자가 있었던 점을 생각하면 도선과 여는 별도의 인물로 생각된다.

19 이지관, 위의 책, 285~286쪽, 「광자대사비문」, “跡徧於桃野 不忘其本 卻歸故山 纔經兩宵 忽有山賊入寺 擬劫衣物直到上方 大師澹然而無罣 不動禪座 被威鋒之辭惡 扶慧刃之降魔 賊徒無[以下缺] 衝突 大師 自無罪過言訖 禮拜走.”



B-2. 그날 밤 꿈에 한 전장(戰將)이 법당에 들어가 몰타나(勿陀那) 칠구(七軀)를 보이고 아랫자리에 앉아 대사를 향해 양인(量忍)이라는 두 글자를 적어 주었다. 꿈을 깨고 놀라 일어나 세수한 다음 단정히 앉아 생각하되 이상하고 이상하다. 백일에 의심이 많은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고, 밤중에 나비의 꿈을 꾸는 것은 고인이 겪은 사실이다. 인하여 대사는 참선하면서 오랫동안 절에 있게 되었다.<sup>20</sup>

B-3. 효공대왕은 대사가 산속에서 드날리는 도풍을 흠모하여 윤한(綸翰)을 보내어 지혜의 눈을 뜨게 해 주시고 나라 또한 복되게 해 주기를 발원하였다.<sup>21</sup>

사료 B군은 윤다가 왕건과 관계를 맺기 이전에 보였던 대안사에서 행적을 단편적으로 나타내 주는 자료이다. 윤다는 수행 후 대안사로 돌아오는데, 이틀 후 산적에 의해 침탈당했다고 한다. 그가 대안사에 주석하는 시기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당시 대안사는 산적 세력에 의해 침탈을 입을 만큼 주변 상황이 불안했던 것으로 보인다. 비문에는 윤다가 사찰에 침입해 온 산적들을 교화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만큼 이 일대 세력과 심한 갈등이 있음을 보여 주는 사료가 아닌가 한다. 즉, 윤다가 초기 주변 세력과 그다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22</sup>

특히 사원의 영향력이 지역사회에서 크게 작용했다는 점<sup>23</sup>을 고려할 때, 대

20 위의 책, 286쪽, 「광자대사비문」, “大師自無罪過言訖禮拜走數見此模樣不免思惟 至夜化夢 有一戰將 入於殿內 見勿陀那七軀 末座向大師書[以下缺] 是量忍兩字而已 睡覺驚訝起來 鹽嗽端坐 偶言曰 也大奇也大奇 白日狐疑了不料 清宵蝶夢成古人 有言一忍得長樂者一忍住世久好重忍兩字 豈徒然[以下缺] 哉 大師因此永獲安禪久居僧寺”.

21 위의 책, 286쪽, 「광자대사비문」, “孝宗大王[효공대왕의 오기] 趨向谷風 遐飛綸翰願開慧眼 以祐國祚 于時 羅運傾否 兵火頻起 弓裔亂紀 甄萱盜名”.

22 한태일, 「경보와 그의 조동선사상」, 『한국고대사연구』 42(2006), 322쪽.

23 김두진, 앞의 책(2007), 120쪽.

안사가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주변 세력과의 마찰을 유발할 소지가 충분했다. 대안사는 혜철이 주석하던 시기 문성왕이 직접 국정을 자문하기 위해 사신을 파견할 정도로<sup>24</sup>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으며, 이후 많은 토지와 노비를 하사받았다. 경문왕 때도 494결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외에 시지(柴地) 143결, 염장(鹽場) 43결 및 많은 수의 복전(福田)과 노비를 거느려<sup>25</sup> 막대한 경제력을 유지했다. 이러한 배경은 대안사가 지역 사회 내에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였음을 보여 준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권위와 재정적 기반이 단지 사찰 내부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신라 왕실의 공식적인 인정과 후원 아래 제도화된 결과였다는 점이다. 이는 적어도 대안사의 경제력을 신라 왕실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sup>26</sup> 그리고 헌안왕(재위 857~861)·경문왕(재위 861~875) 대에 이르기까지 대안사와 왕실 간의 밀접한 관계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sup>27</sup> 그만큼 지역 세력과의 충돌은 중앙 권위에 대한 도전의 성격도 띠었을 가능성이 있다. 윤다가 주석하던 시기에 발생한 산적들의 침입 사건은 단순한 약탈이라기보다 당시 사찰이 감당해야 했던 지역 권력과의 긴장과 대결 구도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곧 도적들이 공손하게 물러났다는 점에서 윤다의 교화가 성공했던 것으로 보인다.

24 이지관,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 신라편』(서울: 가산문고, 1993), 77쪽, “文聖大王聞之謂現多身於象末 頻賜書慰問 兼所住寺四外 許立禁殺之幢 仍遣使問理國之要禪師上封事若干條 皆時政之急務 王甚嘉焉 其裨益朝廷王侯致禮 亦不可勝言也”.

25 위의 책, 93쪽.

26 조범환, 앞의 책(2013), 111쪽.

27 헌안왕은 문성왕을 꺾박하여 자신의 왕위 계승을 하도록 유조를 내리게 했다. 그러므로 문성왕과 밀접히 연계되었던 동리산문의 혜철은 헌안왕의 큰 관심 대상으로서 회유와 포섭의 대상이었다[최인표, 「신라시대 선종교단의 동향과 왕실의 대응」, 『신라문화』 27(2006), 33쪽]. 그리고 경문왕 때 대안사에 혜철을 기리는 적인선사비가 세워진 것을 보아 윤다 이전까지는 대안사와 신라 왕실과의 관계는 지속되었을 것이다.

한편, B-3 사료에는 효공왕(재위 897~912)이 대사를 흠모하여 윤한, 즉 왕명이 담긴 공식적인 조서를 보내 지혜를 구하고 나라의 복을 빌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기록은 단순히 효공왕이 대안사에 관심을 보인 수준을 넘어, 대안사에 국가 차원의 엄중한 명령 혹은 요청이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앞서 헤철 시기 왕실의 적극적인 지원과 왕명 내리기와 비교할 때, 윤다 시기의 이 기록은 매우 다른 성격을 드러낸다. 「자적선사비문」에 따르면, 헤철이 활동하던 문성왕 시기에는 왕이 자주 교서를 내려 위문했고, 헤철 역시 조정에 조항을 올려 적극적으로 국가 사무에 관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대안사가 신라 왕실과 긴밀한 정치적·종교적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sup>28</sup>

하지만 윤다 시기에는 효공왕이 윤한을 보낸 사실 외에는 구체적인 교류나 윤다의 적극적 대응이 전해지지 않는다. 이는 이 윤한 발송이 효공왕의 일방적 의지에 따른 엄중한 요청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대안사의 위상이 여전히 왕실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사 측은 신라 왕실과의 관계에 다소 소극적 태도를 취한 것이다. 이는 이전 시기와 뚜렷이 대비되는 대목으로, 대안사가 다른 정치 세력과 긴밀히 결속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특히 그 세력은 앞서 언급한 도적 세력, 즉 후백제 세력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대안사와 결탁한 정치 세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 시기 왕건은 궁예의 명으로 903년 나주 지역을 공략했다.<sup>29</sup> 따라서 왕건이 서남해 지역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지닌 후이므로 대안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왕건의 즉위 전 윤다와의 관계성은 명확하지 않으므로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왕건이 통일한 이후인 태조 18년(935)에 나

28 「자적선사비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헤철 시기 문성왕은 자주 글을 내려 위문했음이 나타나며, 헤철 역시도 약간의 조항을 올리는 등 조정을 도왔던 측면이 두드러진다.

29 『東國通鑑』 권11, 「新羅紀」, 孝恭王 7년(903) 癸亥.

주의 40여 군이 이탈한 사실을 알 수 있다.<sup>30</sup> 여기서 40여 군이란 현재 전라남도 3분의 2 이상이 해당한다.<sup>31</sup>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왕건이 통일 후에도 여전히 서남해 해상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903년부터 시작된 나주 정벌로 말미암아 이 일대가 왕건의 수중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일대 선종산문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후 왕건은 삼국 통일 전까지 나주 일대, 즉 전남 서남부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했고, 후백제는 전남의 동북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동북부 지역은 사위인 지훤(池萱)이 지키고 있는 무주와 또 다른 사위인 박영규(朴英規)의 재지 기반인 승주(昇州)를 잇는 선으로<sup>32</sup> 후백제의 방어와 확장을 위한 핵심 축을 이루었다. 특히 고려 초 대안사가 있는 곡성은 승평군 즉 승주에 속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일대 세력과의 연관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sup>33</sup> 보다 구체적으로는 견훤과 직접 연결되었기보다는 견훤과 결합한 주요 세력과의 연관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sup>34</sup> 특히 승주를 근거지로 삼고 있던 박영규는 견훤과 혼맥을 맺은 인물로, 곡성 일대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고려 건국 이후에도 일정한 위상을 유지했다.<sup>35</sup>

비문에서 직접적으로 박영규의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지만, 대안사가 소재한 곡성이 고려 초기에 행정적으로 승주에 속해 있었고, 승주가 고려 초 해상과 내륙을 연결하는 전략적 지역이었다는 점에서,<sup>36</sup> 대안사와 같은 내륙 사찰

30 『高麗史節要』 권1, 太祖 神聖大王 18년(935) 4월.

31 박한설, 「나주도대행대고」, 『강원사학』 10(1985), 29쪽.

32 김명진, 「태조 왕건의 나주 공략과 압해도 능창 제압」, 『도서문화』 32(2008), 280쪽.

33 『高麗史』 권57, 「志」 11, 全羅道.

34 비문에 견훤이 언급되지만, 견훤과 선사와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35 변동명, 「신라말고려초의 순천 호족 박영규」, 『역사학연구』 62(2016), 139쪽.

36 『고려사』에 따르면, 성종 14년(995) 승평군은 '昇州袞海軍節度使'의 치소로 설정되었으며(『高麗史』 권57, 「志」 11, 全羅道), 이는 남해안 방어와 수륙 교통 요충지로서 승주의 위상을 명확히 보여 준다. 谷城이 행정적으로 승주에 포함되었다는 점은 대안사와 같은 내륙 사

역시 해상 세력권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고려 왕조에 편입되었음을 시사한다. 후백제와의 관련성을 전제로 한다면, 이 지역의 실질적 정치·군사 권력을 장악한 견훤의 사위 박영규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sup>37</sup> 다만 승주 세력이 언제쯤 견훤과 결탁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후 이 일대가 견훤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던 점을 염두에 두면, 후백제계 혹은 견훤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B-2에서 윤다가 꿈에서 정체불명의 장군과 조우했다는 표현은 후백제계 유력 세력과의 접촉 가능성을 내포한 것일 수 있다. 물타나,<sup>38</sup> 즉 음악신으로 모든 요귀를 쫓아내는 역할을 하는 신의 형상을 들고 와 양인(量忍)이라는 글을 적어 주었다. 인은 고난에 인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꿈을 꾸고 이후 윤다는 참선에만 몰두하여 시비의 관문을 벗어나게 되었다고 나타나 있다. 이는 윤다가 어떠한 갈등을 견뎌 내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스승인 상방화상이 신라 왕실과 밀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세력 판도에 따라 새로운 세력과 협력해야 했던 윤다 자신의 심정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앞서 보았듯이 대안사와 신라 왕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혜철 이후 적어도 상방화상 시기에는 대안사가 견훤계로 흡수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찰 역시 해당 해상 세력권과 밀접한 연관 속에서 고려 왕조에 편입되었음을 시사한다.

- 37 박영규는 『고려사』에 후백제의 '장군'으로 명기되어 있을 만큼 후백제 정권의 핵심 인물이었다. 단순한 외척의 범주를 넘어 후백제 군부 수뇌부에 속한 최고위 무관으로서의 위상을 보여 준다[변동명, 앞의 글(2016), 144쪽]. 이러한 점에서 박영규는 견훤 정권 내에서 군사적·정치적 영향력을 동시에 행사한 실질적 실력자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 38 물타나는 마후라가(Mahoraga)를 의미하는 것으로 마후라가는 팔부(천신·용·야차·건달바·아소락·계·긴나락·마호락가)의 하나이다. 큰 뱀을 뜻하며 원래 인간을 해치는 악신이었으나, 부처님께 귀의한 후 불법을 외호하는 팔부로 위치하게 되었다. 法藏, 『華嚴經探玄記』 권2, 「대정장」 35, 135b25쪽에서는 대복, 대망, 혹은 복행신이라 이름하고 능히 불법을 옹호하므로 능히 의심을 제거한다고 나와 있다. 이지관, 『가산불교대사람 5』(서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03), 917쪽.

다. 윤다가 주지하게 되는 과정에서 대안사는 견훤계로 흡수된 듯하다.

앞에서 본 것처럼 견훤의 전주 천도 이후 동리산문에 대한 지원이 실상산문보다 약해졌기 때문에 윤다와 왕건이 결합했다는 기존 연구의 설명은 성립하기 힘들다. 즉, 동리산문은 견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낮으며, 오히려 그의 배후 세력과 연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대안사가 동리산문의 중심 사찰임에도 불구하고 사료에 견훤이 옥룡사를 후원한 것으로 나타난 점은 견훤이 대안사를 후원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 배후 세력이 대안사를 안정적으로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견훤의 옥룡사 지원은 단순한 사찰 후원을 넘어서, 당시 그가 직면한 새로운 정치적 필요에 따른 조치였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윤다가 왕건과 일찍이 결합함으로써 견훤과의 거리를 두게 되었기 때문에, 견훤이 이에 대응하여 경보선사가 주석하던 옥룡사를 후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견훤의 옥룡사 지원에는 보다 전략적인 정치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견훤의 경상도 지역 진출과 관련하여 해석될 수 있다.

태조 3년(920) 10월, 견훤은 대야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진례군으로 진격했다.<sup>39</sup> 이때 견훤은 대량(大良)·구사(仇史) 두 지역을 탈취했다고 전한다.<sup>40</sup> 여기서 대야성은 오늘날 함천 지역에 해당하며, 구사는 창원으로 비정된다. 이를 통해 후백제군이 함천에서 출발하여 창원과 김해를 잇는 경로를 따라 경상도 서남부로 진입했음을 알 수 있다.<sup>41</sup> 견훤은 이 전선을 확보함으로써 진주, 하동, 거창, 산청, 구미, 선산, 칠곡 등 경상도 서·중부 지역 대부분을 후백제의 영향권 아래에 두었다. 주목할 점은 견훤이 경보선사를 방문한 시점이 921년으로, 그의 대야성 장악 시기와 시차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이로

39 『三國史記』 권12, 「新羅本紀」 12, 景明王 4년(920).

40 『高麗史』 권1, 「世家」 1, 太祖 3년(920) 10월.

41 이도학, 「후백제의 가야고지 진출에 관한 검토」, 『백산학보』 58(2001), 55쪽.

미루어 볼 때, 견훤의 정보 접촉은 경상도 진출과 관련된 전략적 의도가 반영된 행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후백제는 적극적으로 경상도 지역으로 진출하기를 희망했고 적어도 김해 지역 인근까지 거점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가령 선승인 이엄의 경우 김해에 머물렀는데 땅이 적굴과 붙어 있어서 이석(移錫)했다고 한다.<sup>42</sup> 이때 적굴은 후백제의 영역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엄이 김해의 김윤희와 밀접한 연관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떠난 것을 보아<sup>43</sup> 후백제 세력이 김해에 미친 영향력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후백제가 이 지역의 확보에 심혈을 기울인 까닭은 경상도 북부 지역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으며 이후 후백제가 경상도 지역에서 활발한 군사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되었다.<sup>44</sup> 따라서 후백제 세력 확장의 목적으로 경상도 남부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실상사나 옥룡사에 지원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특히 정보는 동리산문 출신이라는 점에서 대안사에서 파생된 사찰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견훤이 921년 경보를 남북선원에 머물게 하고 옥룡사로 옮기는 등 지원을 한 것은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sup>45</sup>

그렇다면 윤다와 동리산문 계통의 다른 승려들과 어떤 차별성을 지니고 있

---

42 이지관, 앞의 책(1994), 14쪽, “四換周星 大師雖心愛禪林 遁世無悶 而地連賊窟 圖身莫安 所以亂邦不居 於是乎在十二季 途出沙火”.

43 위의 책, 14쪽, “爰有金海府 知軍府事蘇公律熙 選勝光山 仍修堂宇”.

44 류영철,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정 연구』(서울: 경인문화사, 2004), 102쪽.

45 가령 김해에 있었던 홍준의 경우 후백제의 경상도 지역의 진출을 계기로 예천에 있는 후백제 세력과 결탁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진경대사비」의 경우 심희의 스승이 열반에 든 기록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만 「자적선사비」에는 스승인 심희의 입적과 관련한 사항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홍준이 심희가 입적한 923년 이전에 예천으로 옮겨 단월을 만났기 때문인 것 같다. 당시 김해 일대에서는 후백제의 힘이 더욱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후백제가 김해 지역 인근에 거점이 소재하면서 김해 지역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홍준은 신라 왕실보다는 후백제의 위력을 크게 보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후백제의 옥룡사 지원은 경상도 남부 일대 승려에게 후백제와 결탁을 촉진하는 선전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있을까?<sup>46</sup> 윤다는 상방화상으로부터 법을 이은 동리산문의 정통 선택을 계승한 인물로, 진전된 교선 교섭 사상과 일심적 사유를 중심에 두었다는 점에서<sup>47</sup> 당시 동리산문 내부의 또 다른 인물들과는 구별된다. 예컨대, 도선은 선사상과 더불어 풍수지리사상을 특징으로 고려 왕건의 개국 이념과 긴밀히 연계되었고,<sup>48</sup> 경보는 건원의 후원 아래 옥룡사에 주석하며 후백제 정권과 직접적으로 결합했다.<sup>49</sup> 반면, 윤다는 효공왕에게서 하교를 받은 사례가 있음에도 신라 왕실과의 밀접한 정치적 유착보다는 대안사 중심의 자율적 교단 운영에 집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문에 나타난 내면적 갈등의 표출은, 정치 권력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그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윤다는 도선이나 경보처럼 특정한 정권과의 밀착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지역 권력과의 간접적 결속을 바탕으로 교단의 실질적 자율성과 위상을 유지한 인물로 파악된다. 도선·경보·윤다의 활동 양상은 동리산문이 단일한 사상·정치 노선이 아닌, 지역과 시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분화되어 전개되었음을 보여 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윤다는 그러한 분화 양상 속에서 후백제계 정치 세력과 간접적으로 연계되면서도, 교선 교섭적 수행과 독립적 교단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독자적 위상을 확보한 선승이

46 도선의 선사상과 동리산문의 해철과 윤다의 사상이 유사한 것으로 파악하거나[추만호, 「나말여초의 동리산문」, 『도선연구』(서울: 민족사, 1999)] 도선과 경보의 嗣法의 계승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옥룡사 계열은 동리산문과는 별개의 계통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김방룡, 「동리산문의 지형과 사상」, 『보조사상』 64(2022), 176쪽.

47 추만호는 윤다의 법맥 계승 검증 부분과 왕건과의 선문답을 통해 윤다의 사상이 신라의 교·선 병행 경향과도 맥을 같이한다고 보았다[추만호, 「나말여초 선사들의 선교양종 인식과 세계관」, 『국사관논총』 52(1994), 208~209쪽]. 김두진은 동리산문의 사상적 특징을 유식론적 선사상과 풍수지리설로 이해하고 특히 윤다가 일심과 교선 교섭을 중시했다고 보았다. 김두진, 앞의 책(2007), 423쪽.

48 『高麗史』 권2, 「世家」 2, 太祖 26년(943).

49 이지관, 앞의 책(1994), 357쪽.



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윤다는 출가 후 동리산문의 대안사에서 상방화상을 친견한 뒤, 혜철과 여를 잇는 선맥을 계승했다. 대안사는 혜철 시기 신라 왕실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번영을 누렸으며, 이후에도 신라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윤다가 대안사에 주석하던 시기에 후백제 세력의 영향력이 이 지역까지 강화되면서 상황은 변화했다. 효공왕이 윤다에게 관심을 표명하며 윤환을 보내기도 했으나, 윤다는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았다. 이는 윤다가 왕실 권위에 예속되기보다는 교단 내부의 자율적 결정권을 중시하며, 외부 권력과 일정한 거리를 두려 했던 행보로 해석될 수 있다. 이후 윤다는 견훤과의 직접적인 결속보다는 승주 일대의 제지 세력과 간접적 연계를 통해 현실적인 정치적 안정을 모색했다. 한편, 견훤이 옥룡사의 경보선사를 포섭한 것은 920년 대야성 함락과 진례군 진격이라는 경상도 진출 상황과 연계된 전략적 결정이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도 대안사는 여전히 후백제 배후 세력의 지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III. 윤다와 고려 왕실의 관계

---

앞서 보았듯이 윤다는 후백제 세력과의 정치적 관련성이 있는 인물이었다. 그렇다면 윤다는 언제쯤 고려 왕실과 관계를 맺게 되었을지 궁금하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료를 주목해 볼 수 있다.

C. 마침내 천명이 돌아갈 왕조가 있었다. 새로이 성스러운 나라를 창업할 때 낭연(狼煙)이 높이 올라 왕래하기가 고통스러웠으므로 스님들은 따로 왕을 도울 길을 찾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신성대왕이 이때를 타고 성주(聖主)가 되어 틈

을 대신하여 명군으로 나라를 편안하게 하고 세속을 편하게 하는 굉기(宏機)를 풍부하게 가졌으며, 불법을 보호하고 진리에 꼭 들어맞는 신술(神術) 또한 능통하였다. 나라 일을 보는 여가에는 마음을 항상 현문에 두었다. 미시(微時)때 부터 대사의 명성을 널리 들었기에 낭관(郎官)으로 하여금 어찰(御札)을 가지고 스님이 계시는 동리산으로 보내어 청하되 “도덕을 양모한 지 이미 오래되오니 스님의 거룩한 모습 뵙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스님께서는 이미 연로하셔서 보행하시기 힘들 터오니 말을 타고 구중(九重)으로 오신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대사가 말씀하시되 “노승이 출가하여 영년(齡年)<sup>50</sup>에 이르기까지 아직 말을 탄 적이 없습니다. 산승도 역시 왕의 국민이니 어찌 감히 왕명을 거역하겠습니까.” 하였다. 석장망혜(錫杖芒鞋)한 보행으로 연하(輦下)에 도착하니 임금이 크게 기꺼워하여 의빈시(儀賓寺)에 모시고 며칠 동안 편안히 쉬시게 하고, 상전(上殿)으로 영입하였다. 임금 스스로 상(床)에서 내려와 공손히 영접하여 빈객의 예로써 대우하였다. 군신들이 이를 보고 그웁이 놀랐다.<sup>51</sup>

사료 C의 기록은 윤다가 왕건의 부름에 응하여 고려 왕실로 갔음을 알려 준다. 윤다는 태조가 새롭게 나라를 창업했으나 낭연(狼煙), 즉 전쟁의 고통으로 따로 왕을 도울 길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왕건이 윤다를 초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나타나 있다. 이 기록을 보면 적어도 왕건이

50 이지관은 80대의 늙은이라고 해석했는데(위의 책, 297쪽, 각주 95) 윤다가 입적할 당시인 혜종 1년(945)에 이미 81세였으므로 왕건과 만났을 당시 80대라고 보기 힘들다. 아마 윤다가 이가 빠졌을 만큼 나이를 먹었다는 의미로 쓰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1 이지관, 앞의 책(1994), 286쪽, 「광자대사비문」, “天命有歸國朝新造[以下缺] 背口梗狼煙 往來辛苦 於沙門裨口 終無於王」神聖大王 乘時聖望主 間代明君 富安邦撫俗之宏機 通護法契理之神術 萬機之暇 留心玄門 自微時 飽聆大師之聲價 因遣郎官 賁御札入山而請曰 仰德日久 願接梵儀 師已老矣 恐難行脚 何妨騎乘 一詣九重 大師曰 老僧由來 未嘗騎馬至於齡年 山僧亦是王民 何敢方命 以錫杖芒鞋 步至輦下 上大喜 令止儀賓寺 安頓數日後 召入上殿 勿趨下 下床接之 待以賓禮 群臣竦然”.

고려를 세운 직후인 918년에는 윤다를 초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왕건은 즉위 초부터 많은 선승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대체로 이러한 선승은 중국에 유학을 다녀온 승려였으며 왕건이 적극적으로 이들을 이용해 정치적 자문을 하는 등 왕권을 신장하려고 했다.<sup>52</sup> 통일 전후 왕건은 유학을 가지 않은 승려 상당수와도 결합했는데, 윤다도 여기에 속한다.

단순히 비문의 내용처럼 고려에서 윤다를 적극 포섭한 이유를 명성 때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당시 선승이 유학을 다녀왔는지 여부는 승려로서의 명성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데 중요한 요건이었다.<sup>53</sup> 따라서 왕건이 유학하지 않았던 윤다를 왕실로 초빙하게 된 이유는 즉위 직후 정치 자문을 목적으로 승려를 예우한 것과는 사뭇 다른 목적임을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왕건과 윤다가 결합하게 된 요인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는 대안사와 연결된 세력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후삼국 시기 선승들은 대부분 지역 호족 세력의 후원을 받았으며, 그와 연계된 단월을 매개로 왕실과의 관계를 맺는 구조 속에 있었다. 즉, 호족과 결합한 선승이 단월의 정치적 행보에 따라 왕실과의 관계를 형성한 사례가 많았다. 김두진은 이를 두고, 왕건이 선승과 결합했던 배경에는 이들과 연고된 지방 호족들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sup>54</sup>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자면, 대안사의 단월이 왕건과 결합하게 된 이후 윤다 역시 고려 왕실의 주목을 받아 궁중에 초빙될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

52 홍승기, 앞의 책(1996), 375쪽.

53 서진교는 당시 승려들이 유학을 선망했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었다고 보았다. 태조가 중국 유학을 한 승려를 포섭하려고 했던 이유도 중국에서 유명한 고승들로 범통을 이은 승려들을 자신의 주변에 포진해 두어 중국의 권위를 가지고 중앙정부 내의 귀족들을 정신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였다고 파악했다. 서진교, 앞의 글(1996), 373쪽.

54 김두진, 「왕건의 승려결합과 그 의미」, 『고려초기 불교사론』(서울: 민족사, 1986), 137쪽.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안사는 승주 지역에 소재해 있었고, 이곳은 박영규·김충 등 후백제의 핵심 호족 세력이 기반을 두고 있었던 지역이다. 따라서 이들이 고려에 귀순한 936년 이후 윤다와 고려 왕실 간의 관계가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박영규와 같은 인물이 왕건에게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던 사실은 단지 후백제 멸망이라는 정치적 사건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렵다. 이는 그가 전남 동부 지역에서 막강한 세력 기반을 갖고 있었던 현실과 왕건의 지방 세력 포섭 전략을 고려해야 이해될 수 있다. 더욱이 왕건은 선승에 대해 각별한 우대를 아끼지 않았으며, 다수의 승려들도 왕건의 친선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sup>55</sup> 윤다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윤다가 왕건으로부터 ‘군신들이 놀랄 정도의 빈객(賓客)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은 그가 단지 한 지방의 고승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지녔던 존재였음을 말해 준다.<sup>56</sup>

D. 대사 [결락] 삼배를 하고 물러가면서 흥왕사(興王寺)에 모시도록 명하였다. 그 후 황주원(黃州院) 왕욱(王旭) 낭관(郎官)이 멀리서 스님의 청풍을 앙모하고 편지를 보내 제자가 되어 스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자 희망한다고 하였다. 드디어 열반을 수년 앞두고 산문으로 돌아가려 하였다. 더군다나 내의령(內議令) 황보숭(皇甫崇)과 태상(太常) 충랑일감(忠良日監)이 대사의 공양구를 살피되 마치 집시자(執侍者)와 같이 하므로 대사는 더욱 마음이 불안하였다. 어느 날 임금께 고하되 “사슴이 들판에서 자유롭게 놀 듯 산중에서 조용하고 편안하게

55 위의 글, 109쪽.

56 동진대사 경보는 후백제 시기 건원의 귀의를 받은 인물로, 고려 통일 후 왕실 초빙에 응해 입조했으며 혜종과 정종의 극진한 예우를 받았다. 그러나 왕건의 직접적인 예우는 비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이는 윤다와 비교되는 사례이다.

있도록 놓아 달라.”라고 간청하였다. “외람되어 어명을 받아 왕성으로 내왕하니 점차 정에 끌려 부자유함이 헌학(軒鶴)과 양제(梁鵜)로도 비유할 수 없나이다. 옆드려 바라옵건대 신승(臣僧)의 작은 생각을 가납하시어 구름처럼 고산에 돌아 가서 마치 고기가 깊은 물에서 노는 것과 같이 하여 주시면 그 은혜 참으로 크다 하겠나이다.” 하였다. 이 같은 스님의 간청을 들은 왕은 허락하여 동리산으로 돌아가게 하고 본도의 수상(守相)에게 명하여 전결(田結)과 노비를 헌납하여 향적(香積)을 제공토록 하였으며, 외호의 가풍을 잊지 아니하고 항상 팔행의 예를 펴서 돈독한 단월이 되어 불교의 보존과 유지의 의무를 받아서 각기 진뢰(陳雷)를 본받았다. 진실로 [결락] 구분(舊分).<sup>57</sup>

사료 D는 왕건의 윤다 초빙 이후 홍왕사에 주석한 사실을 알려 준다. 홍왕사는 『고려사』의 기록에 보면 문종(재위 1046~1083)이 12년 만에 창건했다고 나와 있다.<sup>58</sup> 총 2,800칸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아 문종 때 다시 중창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특히 황주원의 왕자인 대종 육이 제자가 된 것으로 보아 개경 일대의 사찰인 것은 틀림없으며, 이후 의천과의 관련성, 공민왕 시기 홍왕사의 난 등의 사실을 보면 왕실과 밀접한 사찰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윤다가 홍왕사에 머문 이후 왕육이 편지를 보내 윤다의 제자가 되기를 요청했다. 왕육은 왕건의 일곱째 아들이며, 어머니는 황주의 유력 호족 황보제공(皇甫悌恭)의 딸로 태조의 제4왕후인 신정왕태후(神靜王太后) 황보씨이다.

57 이지관, 앞의 책(1994), 287쪽, 「광자대사비문」, “大師口三禮而退 命安置興王寺 黃州院王旭郎官 遙仰清風 平傳尺牘 願爲弟子 冀效從師 遂寂滅而數年 山間而復 況內議令 皇甫崇 太常忠良 日監大師之供饋 如執侍者之職 大師 益不安一日 諒于上曰 麋鹿野縱 甘伏丘壑 猥承御命 來住王城 恐懼情深 軒鶴梁鵜 未足喻也 伏望許從微情 俾雲歸古山 魚游深壑 爲賜大矣 上許之 令歸桐裏古山 命本道守相 畫給田結奴婢 以供香積 不忘外護之風 每展八行之禮 仍爲壇越 久受保持 各效陳雷 允口舊分”.

58 『高麗史』卷8, 「世家」8, 文宗 21년(1067) 丁未年.

이처럼 황주의 유력 호족 세력이자 왕자 출신인 옥이 윤다의 제자를 청했다는 점이 특이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왕옥은 황주원(黃州院) 낭관(郎官)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황주원이 신정황후의 궁원으로 아직 관례를 치르지 않은 나이였던 것으로 보인다.<sup>59</sup> 황보원이 신정황후의 본가가 있는 황주의 지명을 좇아서 원호를 지었다는 점에서 황보씨 세력과 밀접한 곳으로 볼 수 있으며, 왕옥의 제자 요청은 곧 황보씨 세력과 윤다와 밀접한 형성을 도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내의령이자 황보의 성을 지닌 인물이 흥왕사에 주석한 윤다의 곁을 지키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보아도 황보씨와 흥왕사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특히 내의령은 고려 초기 삼성의 하나인 내의성의 장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성종 때 내사령으로 고쳤다.<sup>60</sup> 이를 보면 높은 직위에 있던 황보씨 세력이 윤다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려고 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다만 비문에서 공양구, 즉 부처에게 바치는 음식물과 물건 등을 살핀다는 것은 그러한 제물을 지원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다. 이들 세력이 마치 집시자와 같이 하므로 윤다의 마음이 불안했다고 서술한다. 이는 그만큼 황보씨 세력이 윤다의 동향을 면밀히 살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왜 황보씨가 윤다의 동향을 살폈을지 궁금하다.

이는 당시 불교가 사상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점도 작용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태조의 정치적 정책 방향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

59 경종 기록에 「황주원의 두 낭군에게 모두 관례를 행하고 원의 이름을 고쳐 명복궁이라고 했다」는 기사를 보아 『高麗史』, 「世家」 2, 景宗 원년(976) 당시 왕옥도 황주원의 낭관 즉 관례를 행하지 않았던 15세 전의 나이가 아닐까 한다. 조선 시대의 경우 관례는 주로 8~14세에 행해졌다. 이를 보아도 당시 왕옥의 나이가 상당히 어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김혜정, 「전통 관례와 현대 성년례 복식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8), 32쪽]. 다만 낭관이 관직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라는 점에서 어떤 관직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0 『高麗史』 권76, 「志」 30, 百官 門下府.

로 보인다. 당시 왕건은 서남부 해안 지역을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해상 세력은 정치적·군사적 요충지로 부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황보씨 세력은 황주 지역의 유력 호족으로서 중앙 귀족 체제 내에서 일정한 기반을 갖고 있었지만, 점차 부상하는 서남해 지역 세력에 대한 견제가 불가피했을 것이다.<sup>61</sup>

특히 황보씨 일족이 고려 왕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중 황보제공의 딸인 신정왕후가 제4왕후에 책봉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려 초 왕실 내부에서 다른 유력 지방 세력과의 권력 균형은 중요한 정치적 과제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충주 유씨와 나주 오씨 가문은 이미 고려 왕실 내 핵심 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으며, 특히 승주 출신 박영규는 2대에 걸쳐 외척으로서 고려 초기 정치 구조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이처럼 서남해 지역의 호족들은 고려 왕실의 주요 기반 세력으로 부상했으며, 이들은 중앙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며 왕실 권력의 실질적인 축으로 기능하고 있었다.<sup>62</sup>

이러한 정치 지형은 역으로 황주를 기반으로 한 황보씨 세력에게는 위기 의식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황보씨 세력은 단순히 지방 호족과의 연계를 통해 세력을 확장하려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중앙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

61 물론 윤다를 전형적인 서남해 해상 불교 세력의 대표로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의 주 활동지인 곡성 태안사는 내륙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승주를 기반으로 한 박영규 계열과 밀접한 연계를 맺고 있었으며, 이는 나주 오씨 등 서남부 해상 호족 세력과 함께 고려 초 왕실 권력의 주요 기반을 형성했다. 이러한 점에서 서남부 지역 호족들을 '서남해 세력'으로 포괄할 수 있으며, 윤다 또한 이들과 정치적으로 연결된 종교 세력으로서 황보씨의 견제와 관심을 받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62 왕건이 여러 해상 세력과 연계하여 통일을 이루었기에 초기부터 그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고수했고 그에 따른 문제가 파생된 것이 왕위계승난이라고 지적된 바 있다[강희웅, 「고려 혜종조 왕위계승난의 신해석」, 『한국학보』 7(1977), 69~73쪽]. 비록 강희웅이 세력을 양분화하여 보았기는 하지만, 이는 고려 초기 해상 세력과의 연계가 상당히 중요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던 서남해 호족 세력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을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황보씨 가문의 정치 행위는 권력 균형 유지를 위한 방어적 조치이자 고려 왕실 내부에서의 지속적 주도권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왕육이 윤다에게 제자가 되기를 요청한 이후, 그가 구체적으로 불교 사상이나 수행을 통해 어떤 배움을 받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왕육, 더 나아가 황보씨 가문의 행동이 단순히 윤다의 선사상이나 불교적 교학을 흠모하여 취한 행위로 보기 어려운 근거가 된다. 오히려 윤다에 대한 제자 요청은 서남해 지역 세력을 견제하고자 했던 황보씨 가문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황보씨 세력이 윤다와의 관계를 형식적으로나마 맺고 그의 위상을 공적으로 부각함으로써 서남해 세력의 독자적인 영향력을 제한하려 했던 정치적 시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비문에서는 윤다가 그러한 행동이 부담스럽다고 여겨 자신이 이전에 머물렀던 대안사로 다시 내려가기를 요청하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비문에 황보씨 세력 이외의 뚜렷한 인물이 기입되지 않은 점을 보면 부정적인 사실을 그렸다고 보기 힘들다. 윤다의 겸허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황보씨 세력의 예우를 강조하려는 문학적 구성으로 보인다. 실제로 왕건은 수상(守相)에게 명하여 전결과 노비를 헌납하여 향적을 제공하도록 했으며, 자신이 직접 돈독한 단월임을 밝혔다. 이때 제시된 토지는 대체로 신라 말 대안사에 소속된 토지의 내역과 유사했다.<sup>63</sup> 이는 윤다의 입장에서는 대안사 재산을 고려 왕실로부터 공인받고, 이를 바탕으로 사찰의 부흥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윤다와 왕실 간의 관계는 단순한 신앙

---

63 김두진, 앞의 책(2007), 318쪽.



적 교류가 아닌, 정치 권력 내에서 지역 세력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 IV. 광자대사비의 건립과 황보씨 세력

---

윤다는 박영규·김충과 같은 유력 호족 세력이 고려에 편입된 이후, 즉 936년 이후에야 고려 왕실과 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후 태조 왕건의 요청에 따라 개경 인근의 흥왕사(興王寺)에 주석하게 되었으며, 이 시기에 황보씨 세력이 윤다에게 주목하고 제자 요청을 하는 등 그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던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불교적 존경심의 발현이라기보다, 서남해 지역 불교 세력의 대표 인물이었던 윤다를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견제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윤다는 황보씨 세력의 관심을 받는 동시에, 태조로부터 전결(田結)과 노비를 하사받고 향적(香積)을 제공받는 등 고려 왕실로부터도 극진한 예우를 받았다. 이후 그는 다시금 대안사로 내려가 말년을 보내며 교단을 이끌었고, 혜종 2년(945) 2월 2일, 제자들에게 법맥을 부촉한 뒤 속년 82세, 승랍 66세로 입적했다. 윤다의 입적 후 고려 조정은 본산인 대안사에 승탑을 건립하게 했고, 5년이 지난 광종 원년(950)에 비문이 제정되어 비가 세워지게 된다.

그렇다면 윤다의 승탑과 비 건립을 주도한 세력은 누구였는가. 윤다의 정치적·종교적 위상을 기반으로 한 고려 왕실과의 관계, 특히 황보씨 세력과의 관계는 그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는 윤다 사후, 승탑 및 비문 건립과 관련된 사료를 검토함으로써 당시 이를 주도한 정치 세력과 그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1. 상부에 보고하여 이윽고 조정[朝]이 본산(本山)에 대사의 답을 세우게 하 되, 경비는 모두 국고에서 부담하게 하고 역부로는 부근 주민을 동원토록 하였다. 공사를 마치고 나니 장엄이 주밀하고 조탁(彫琢)도 매우 우아하였다.<sup>64</sup>

E-2. 상수문인(上首門人)들이 다시 조정에 건의하되[朝曰] “선사(先師) 신(臣) 모(某)는 다행히 지우(知遇)를 입어 나라의 은혜가 끝이 없었고, 생전과 사후 모두 영광이었으나, 탑에 따른 비명(碑銘)이 빠져 있어, 선사 신(臣)이 평소에 세운 도행(道行)이 점차 [결락]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엿드려 바라건대, 예택(睿澤)을 내리시어 □從 하시어 풍비(豐碑)<sup>65</sup>를 세우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청하옵니다.”<sup>66</sup>

사료 E군은 윤다의 탑비가 세워지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945년 윤다 입적 후 왕이 직접 탑비를 세워 주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보통 나말여초의 선승 비는 왕이 직접 비를 세워 주는 경우가 많다.<sup>67</sup> 그런데 비

64 이지관, 앞의 책(1994), 287쪽, 「광자대사비문」, “朝令建塔本山 財出官廩 役以近民 莊嚴周密 彫琢甚妙”.

65 「강릉 지장선원 낭원대사 오진탑비」, 「영월 흥녕사 징효대사 보인탑비」 등에도 풍비는 비문 주인공의 위덕과 행적을 기리는 찬양적 표현으로 사용되어, 교단 내 위상을 상징하는 수사적 장치로 기능한다.

66 이지관은 왕이 樹碑를 허락한 것으로 해석했지만, 원문상 왕이 주체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지관, 앞의 책(1994), 287쪽, 「광자대사비문」, “上首門人等 復告于朝曰 先師臣某 幸蒙知遇 國恩罔極 生死俱榮 而塔上之銘闕焉 恐先師臣 平日樹立之道行 漸[以下缺] 至淪沒 伏乞睿澤 □從 許樹豐碑者”.

67 가령 태조 24(941)년 세워진 ‘충주 정토사 법경대사 자등탑비’에도 上, 즉 임금이 슬퍼하며 시호를 내리고 탑은 慈燈之塔이라 이름했다고 나타난다. 광종 5년(954)에 건립된 ‘봉화 태자사 낭공대사탑비’에는 ‘今上’이라는 표현을 통해, 당시 왕명이 내려져 선사의 시호와 탑명이 추증되고, 비문 또한 왕명에 따라 지어졌음을 알 수 있다. 광종 16년(965)에 ‘문경 봉암사 정진대사 원오탑비’에는 문도들이 대사를 위해 비를 세울 것을 청하자 광종이 이를 ‘上許之’, 즉 직접 허락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아울러 석판을 어렵게 구한 사정을 들은 광종이 기뻐했다는 서술도 함께 전해진다. 여타의 선승비에서 朝로 표현된 주체가

문에서는 조령(朝令)으로 하여금 승탑이 건립되었다는 점에서 현재 왕과의 직접적인 관계성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하지만 조정에서 세웠다는 점에서 왕실과의 연관성을 염두에 둘 수 있다. 그렇다면 윤다를 위한 승탑 건립은 어느 시기에 이루어졌을지 궁금하다.

비문에는 윤다의 승탑이 언제 세워졌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입적 보고 후 조정이 탑을 세우게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윤다의 입적 시기가 혜종이 죽게 되는 시점과 멀지 않으므로 적어도 혜종 시기에는 윤다의 승탑이 세워지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혜종은 왕위 계승 초기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으며, 그 결과 임금의 체통을 잃을 지경에 빠지기도 했다.<sup>68</sup> 혜종이 정상적인 권력을 행사하지 못한 것은 왕위를 노리는 여러 왕자들 때문이었다. 그렇게 본다면 왕자 왕욱과 연결된 윤다를 위해 비를 세워 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승탑 건립은 정종(재위 945~949) 시기에 이루어졌을 것이다.<sup>69</sup>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비문에는 승탑 건립이 왕명으로 기록되지는 않았다. 이는 정종의 의지라기보다는 조정의 어떠한 집단에 의해 승탑이 건립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주체는 왕건과 정종에 납비를 할 만큼 그 당시까지 주요 세력이었던 승주의 박영규 세력이 아니었을까 한다. 다만 정종의 주요 지지 기반이 서경 세력이었고 서경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승탑 건립은 양 세력의 영향력을 고려한 절충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광종 시기에 오면 조정에 다시금 상수문인(上首門人)이 건의하여 탑이 아

---

입비를 허락하는 형태는 찾아보기 어렵다.

68 『高麗史』 권93, 「列傳」 6, 崔承老傳.

69 물론 정종 시기가 아니라 광종 때 승탑 건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조정에서 승탑만 건립해 주려고 했던 사실과 광종 원년에 비명이 새겨진 정황을 보았을 때 정종 시기에 여러 세력 간 갈등을 빚던 상황 속에서 승탑 건립만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

닌 비를 세워 줄 것을 건의하고 조정은 이를 수락했다. 이때 비 건립을 주도한 세력은 앞서 승탑을 세운 세력과는 달리 광종과 연관된 새로운 정치 집단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광종 때 세워진 광자대사비의 비문에는 재가 제자의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다. 대안사의 경제력을 참작할 때 상당한 세력이 재가 제자로 존재했을 것이다. 그런데 비문에는 그것이 의도적으로 삭제된 것이 아닌가 할 만큼 황보씨와 윤다의 관계 이외에는 연관된 인물이 드러나지 않는다.<sup>70</sup> 따라서 광종의 지지 기반이기도 했던 황보씨 가문의 주도로 비가 세워진 것이 아닌가 짐작해 볼 수 있다.

광종 지지 세력은 평주 세력과 황주 세력이었고, 광종 즉위 직후 권력 핵심은 평주 출신과 더불어 황주 사람들이었다. 황주는 신정왕태후와 대종 왕육 그리고 광종의 부인인 대목왕후 황보씨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sup>71</sup> 비가 즉위 초기에 곧바로 세워졌다는 점에서도 황보씨 세력의 요청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 판단된다. 한편 비문 작성자 손소가 광종 측근으로 알려져 있어,<sup>72</sup> 비문은 광종과 황보씨 세력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기록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비문이 독자적인 왕명이 아닌 조정령(令)으로 기록된 점은 비 건립이 윤다와 연계된 조정 내 정치 집단이 공동으로 주도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광종 초기 황보씨 세력이 대안사에 광자대사비를 세우도록 요청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대안사의 막대한 경제력을 황보씨 가문과 중앙 권력이 흡수·통제하려는 정치적 견제책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고려는 국초부터 서남해 해상 세력 없이 개국될 수 없었으며, 광종 이전에

70 가령, 眞澈大師 利嚴(870~936)의 「해주 광조사 진철대사 보월승공탑비문」에는 재가 제자로서 左丞相 皇甫悌恭, 前 王子 太相 王儒, 前 侍中 태상 李陟良, 廣評侍郎 鄭承休 등의 이름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대조적이다.

71 김창현, 「고려 초기 정국과 서경」, 『사학연구』 80(2005), 42쪽.

72 김창현, 『광종의 제국』(서울: 푸른역사, 2003), 221쪽.

중앙에서 그들이 주도적으로 세력을 잡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서남해 세력과의 결탁은 초기에는 유효했을 것이다. 황보씨 세력은 그러한 서남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세력의 자율적 성장과 독자성을 우려했으며, 이를 견제하고자 했다. 그런데 서남해 세력을 등에 업은 혜종이 죽고 나서 서남해 세력은 빠르게 몰락하게 된다. 특히 초기에 유력 가문이었던 나주 오씨 세력은 이미 정종 때 약화했고 점차 서남해 세력은 중앙 정계에서 위축되었다.

광종 즉위 전후 급격한 정국 변화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정종과 광종의 교체가 빠른 시일 내에 일어나게 되는데, 혜종의 경우 정종의 반란으로 일어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정종이 광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광종도 정변으로 왕위를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sup>73</sup> 그리고 정종의 서경 세력까지 광종 시기에 숙청당한다. 그런 만큼 서남해 세력의 타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광종의 왕위 계승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광종 이후 정종을 지원하던 박영규 세력에 관한 기사는 찾을 수 없다. 즉, 광종의 즉위로 대안사를 지지하던 그 일대 재지 세력이 완전히 몰락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지속적으로 개경 세력<sup>74</sup>이 서남해 세력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결과였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광자대사비의 건립은 고려 초 왕위쟁탈전과 중앙 권력 재편 과정에서 개경 세력, 특히 황보씨 가문을 중심으로 한 중앙 권력이 서남해 기반 재지 세력을 견제·제압하고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했음을 상징하는 산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고려 왕실의 왕위 계승과 관련한 상황은 고려 왕실과 대안사의 관계를 어느 정도 짐작하게 한다. 특히 나말여초에는 왕실의 허락을 통해 사원

73 김창현, 앞의 글(2005), 42쪽.

74 정종을 추대해 서경 천도를 시도했던 서경 세력과 광종을 내세운 평주·황주 중심의 세력은 구분되며, 다만 황주는 시기에 따라 서경으로 포함할 수 있다. 위의 글, 36쪽.

에 담비를 세우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원을 통제하면서 한편으로 사원과 유대관계를 지속할 수 있었다.<sup>75</sup> 따라서 광종 집권기 왕실이 대안사에 윤다의 비를 세운 것은 해당 지역에 대한 왕실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및 중앙 집권적 통제 강화라는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특히 그 일대 세력이 제거된 시점에서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비문에 왕건이 왕실이 돈독한 단월임을 표현하는 부분은 사원의 통제 및 나아가 그 일대를 고려 왕실로 흡수하겠다는 의도를 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과정은 중앙 권력이 서남해 재지 가문을 견제하고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으며, 결국 개경 중심의 권력 체계 구축에 기여했다고 할 것이다.

## V. 맺음말

---

앞서 윤다의 생애와 활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검토한 것들을 요약하여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윤다는 선종 승려로 비록 당나라 유학 경험은 없었으나, 나말여초 혼란기 대안사에서 자신을 지원해 줄 후백제 계열 재지 세력을 만났다. 그는 당시 세력 판도에 따라 후백제 세력과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했으며, 그러한 내용은 「광자대사비문」에 잘 드러난다.

이후 윤다가 머물고 있는 지역의 재지 세력이 고려로 귀부하면서, 윤다는 고려 왕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특히 왕건의 서남해 지역 우대 정책으로 윤다는 극진한 대우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안사의 입지를 헤쳐이

---

75 최인표, 「나말여초 선종불교와 왕권: 정치체제의 변천과 선종불교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전통문화연구』 13(1999), 144쪽.

주석했던 시기만큼 번성하게 했다. 하지만 고려 초 왕건 사후에 왕위 계승과 관련하여 여러 세력의 알력 다툼이 발생했고, 윤다 사후에 탐비를 건립하는 데도 이러한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윤다의 탐이 세워지는 과정이 독자적인 왕명이 아닌 조정의 령으로 기록되었으며, 비가 윤다 입적 후 5년 뒤 건립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재가 제자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던 점은 광자대사비의 건립이 당시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특히 광종 초 황보씨 세력이 주도하여 대안사에 광자대사비를 세우도록 요청했음을 밝혔다. 고려는 국초부터 서남해 해상 세력이 없이 개국될 수 없었고, 황보씨 세력은 선종 승려 윤다를 통해 서남해 해상 세력을 견제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다. 윤다가 이들의 개입을 부담스럽게 여겼다고 한 표현은 그러한 정치적 의도를 방증한다.

하지만 혜종과 정종을 거쳐 광종이 즉위한 후 상황은 역전된다. 정종과 광종의 교체가 빠른 시일 내에 일어나게 되었고 서남해 세력은 큰 타격을 입었다. 이는 광종의 즉위로 대안사를 지지하던 그 일대 재지 세력이 완전히 몰락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지속해서 개경 세력이 서남해 세력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결과였을 것이다. 이러한 정세 변화 속에서 황보씨 세력 역시 더는 서남해 세력을 견제하거나 연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광종 즉위의 성공은 고려 초 각 지역 세력이 점차 개경 중심의 권력 구조로 흡수되고 재편되어 간 과정을 보여 준다. 즉, 광자대사비의 건립은 최종 왕위쟁탈전 속에서 개경 세력이 최종적으로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高麗史節要』.  
『東國通鑑』.  
『三國史記』.  
『高麗史』.  
『華嚴經探玄記』.  
「광자대사비문」.  
「낭공대사비문」.  
「법경대사비문」.  
「적인선사비문」.  
「정진대사비문」.  
「진철대사비문」.  
「징효대사비문」.

### 2. 논저

강희웅, 「고려 혜종조 왕위계승난의 신해석」, 『한국학보』 7, 1977, 2062~2091쪽.  
김갑동,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후백제』, 서울: 서경문화사, 2010.  
김두진, 「왕건의 승려결합과 그 의미」, 『고려초기 불교사론』, 서울: 민족사, 1986.  
김두진, 「나말여초 동리산문 성립과 그 사상: 풍수지리사상에 대한 재검토」, 『동방학지』 57, 1988, 1~51쪽.  
김두진, 『신라하대 선종사상사 연구』, 서울: 일조각, 2007.  
김명진, 「태조 왕건이 나주 공략과 압해도 능창 제압」, 『도서문화』 32, 2008, 273~327쪽.  
김방룡, 「동리산문의 지형과 사상」, 『보조사상』 64, 2022, 173~202쪽.  
김창현, 『광종의 제국』, 서울: 푸른역사, 2003.  
김창현, 「고려 초기 정국과 서경」, 『사학연구』 80, 2005, 33~77쪽.  
김혜정, 「전통 관례와 현대 성년례 복식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류영철,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정 연구』, 서울: 경인문화사, 2004.  
박한설, 「나주도대행대고」, 『강원사학』 1, 1985, 19~61쪽.



- 박혜범, 「광자대사 복원비문」, 『동리산사문비보』, 파주: 박이정, 2009.
- 변동명, 「신라말, 고려초의 순천 호족 박영규」, 『역사학연구』 62, 2016, 137~167쪽.
- 신호철, 「고려 건국기 서남해 지방세력의 동향: 나주 호족의 활동을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 58, 2011, 1~32쪽.
- 이경복, 「신라말, 고려초 대안사의 전장과 그 경영」, 『이화역사연구』 30, 2003, 119~136쪽.
- 이덕진, 「신라말 동리산문에 대한 연구」, 『한국선학』 2, 2002, 209~256쪽.
- 이도학, 「후백제의 가야고지 진출에 관한 검토」, 『백산학보』 58, 2001, 45~70쪽.
- 이재범, 「신승점의 생애와 사후 추숭」, 『성대사림』 44, 2013, 119~147쪽.
- 이지관,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 신라편」, 서울: 가산문고, 1993.
- 이지관,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 고려편 1」, 서울: 가산문고, 1994.
- 이지관, 「가산불교대사림 5」, 서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03.
- 정선용, 「고려태조의 대신라동맹 체결과 그 운영: 신라 경명왕·경애왕과의 교섭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탐구』 3, 2009, 121~168쪽.
- 조범환, 「신라하대 해철선사와 동리산문의 개창」, 『민족문화논총』 34, 2006, 447~472쪽.
- 조범환, 「나말여초 선종산문 개창 연구」, 서울: 경인문화사, 2008.
- 조범환, 「나말여초 남종선 연구」, 서울: 일조각, 2013.
- 최성렬, 「『태안사지』 소재 광자대사비명의 문제점」, 『한국불교학』 29, 2001, 195~223쪽.
- 최성렬, 「대안사 담선방과 태안사」, 『철학논총』 28, 2002, 1~19쪽.
- 최인표, 「나말여초 선종불교와 왕권: 정치체제의 변천과 선종불교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전통문화연구』 13, 1999, 133~159쪽.
- 최인표, 「신라하대 선종교단의 동향과 왕실의 대응」, 『신라문화』 27, 2006, 75~109쪽.
- 추만호, 「나말여초의 동리산문」, 영암군(편), 『선각국사도선의 신연구』, 광주: 영암군, 1988.
- 추만호, 「나말여초 선사들의 선교양종 인식과 세계관」, 『국사관논총』 52, 1994, 189~230쪽.
- 추만호, 「나말여초의 동리산문」, 『도선연구』, 서울: 민족사, 1999.
- 한기문, 「불교를 통해 본 통일신라·고려 왕조의 연속성」, 『한국중세사연구』 29, 2010, 81~111쪽.
- 한태일, 「경보와 그의 조동선사상」, 『한국고대사연구』 42, 2006, 313~346쪽.
- 홍승기, 「고려 태조의 국가경영」,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 국문초록

이 연구에서는 나말여초 선종 승려 광자대사 윤다의 활동과 고려 초 광자대사비 건립 과정을 정치사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고려 초기 왕실 중심 세력 구도와 그 변동 양상을 고찰했다. 윤다는 유학 경험이 없는 선승이었으나, 나말여초 혼란기 대안사에서 후백제 계열 재지 세력의 후원을 받으며 활동했다. 그는 당시 정치·사회적 세력 구도에 따라 후백제 세력과 협력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광자대사비문」에 잘 드러난다. 이후 윤다가 주석한 일대의 재지 세력이 고려에 귀부하면서 자연스럽게 고려 왕실과 연결되었고, 특히 왕건의 서남해 지역 우대 정책 덕분에 극진한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왕건 사후 왕위 계승 과정에서 세력 간 알력이 발생했고, 윤다 사후에 탑비를 건립하는 데도 정치적 긴장이 반영되었다. 윤다의 탑비가 독자적 왕명이 아닌 조정의령에 의해 세워졌고, 비 건립 시 재가 제자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점은 당시 정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광종 초기 황보씨 세력이 대안사에 광자대사비 건립을 요청한 것은 이와 관련 깊었다.

고려는 국초부터 서남해 해상세력의 지원 없이 개국하기 어려웠으나, 광종 시기를 전후해 황보씨 세력은 이들의 성장에 위협을 느끼고 서남해 세력을 견제하려 했다. 윤다가 황보씨 세력의 과도한 개입에 부담을 느꼈다는 기록도 이런 긴장을 반영한다. 정종과 광종 간 빠른 권력 교체 후 서남해 세력은 큰 타격을 입었으며, 이는 대안사를 지지하던 서남해 재지 세력의 몰락과 개경 중심 왕실 세력의 권력 집중 결과였다. 광종 즉위는 초기 고려 세력의 개경 중심 결집을 상징하며, 광자대사비는 최종 왕위 쟁탈전에서 개경세력이 서남해 세력을 견제하고 권력을 장악했음을 보여 주는 역사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투고일 2025. 7. 3.

심사일 2025. 7. 29.

게재 확정일 2025. 8. 26.

주제어(keywords) 대안사(Dae-an-sa temple), 광자대사(Gwangja Daesa), 윤다(Yun Da), 동리산문(Dongrisanmun), 광종(King Gwangjong)

### The Activities of Yun Da in the Late Silla and Early Goryeo Period and the Significance of the “Gwangja Daesa stele”

Jeon, Hyebeen

Gwangja Daesa Yun Da was a Seon monk active during the late Silla and early Goryeo periods, supported by the local Gentry aligned with the Later Baekje. He cooperated with these forces due to prevailing political realities, as reflected in the “Gwangja Daesa Stele”. When the local gentry submitted to Goryeo, Yun Da established ties with the royal court and was highly honored under Wang Geon’s policy of favoring power around the southwest coast region, helping to restore the Daeansa Temple’s prominence.

However, following Taejo’s death, factional struggles intensified. Yun Da’s pagoda stele was erected not by an independent royal order but by a government decree five years after his death. Notably, the stele lacks the names of lay disciples, indicating the political motives behind its construction. King Gwangjong’s reign saw the Hwangbo clan, one of his key supporters, request the erection of the stele, aiming to control and check the power of factions around the southwest coastal region, which had grown influential since Goryeo’s founding.

The Hwangbo clan viewed this regional power as a threat and sought to limit its influence by managing Daeansa Temple and Yun Da. The latter’s recorded unease about Hwangbo’s involvement reflects this tension. After the rapid succession struggles between Kings Jeongjong and Gwangjong, power in the southwest coastal region suffered a major blow. Gwangjong’s consolidated power in Gaegyeong diminished region’s maritime influence. Thus, the “Gwangja Daesa Stele” symbolizes the political victory of the Gaegyeong-based faction and its Hwangbo allies over regional power during early Goryeo’s centralization process.